

화제의 당선자

광주 서구를 오병윤(통합진보)

‘야권연대의 힘’ 새누리 이정현 꺾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광주 서구에서 야권연대 단일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광주 첫 ‘진보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오 당선자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첫 야권연대 단일 후보였던 만큼 민주당 고정 지지층과 통합진보당의 고정표를 더하면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정현 후보가 ‘불공’을 일으키며 선전해 선거기간 동안 이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힘겨운 싸움을 펼쳐야 했다.



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라는 서구를 지역민의 위대한 결단'이라며 '민주통합당과 통

합진보당이 함께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 당선자는 3차례 국회의원 도전 끝에 제19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8대 총선과 2010년 7·28 보궐선거 등 2차례 민주노동당 후보로 도전했지만, 민주당 후보들에게 석패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17.71%의 득표율을 올렸고, 7·28 보선에서도 44.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후보를 위협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10.46% 득표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화순 이서 출신인 오 당선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1985년)과 2010 지방선거 야권연대 협상대표,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서구 갑 박혜자(민주통합)

12년만의 지역 유일 여성 국회의원

4·11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19개 선거구 중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광주 서구 갑 선거구 박혜자 호남대 교수가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을 모두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했다. 이 때문에 박 교수의 이번 승리는 더욱 값지게 평가되고 있다. 박 교수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권을 받은

박 당선자는 제9대 총선에서 광주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신민당 김윤덕 의원과 제16대 총선 광주 동구 민주당 김경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16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지역구 여성 후보가 두 차례나 연거푸 당선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이후 치러졌던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여성 구청장 후보가 두 차례나 연거푸 고배를 마셔 서구에서 여성 국회의원 후보의 당선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상당

뒤 민주당 조직을 꾸준히 다지고, 선거 막판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끌어내는 등 ‘정치신인’답지 않은 무서운 저력을 보이며 ‘압승’을 이끌었다.

특히 경선에서 탈락한 조영택 후보와 송갑석 후보가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민주당 표심이 분열되는 등 내홍속에서도 공천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서운함을 달래며 바다 민심까지 끌어안는 저력까지 보여줬다.

박 교수는 “복지행정 전문가답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복지행정분야의 다양한 공약들을 실천할 것”이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 복지의 틀을 다시 짚는 각오로 될 계획”이라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곡성 김선동(통합진보)

민주 텃밭서 민주 후보 제치고 재선 성공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에 입성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발생한 최루탄 투척 사건은 선거기간 내내 논란의

표리표가 되어 따라다녔다. 진보세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보수층에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 당선자는 젊음과 패기, 진보세력의 리더 등을 내세우며 농민화와 재야세력의 물질지원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과시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상대 민주통합당 노관구 후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중도사퇴 등을 집요하게 몰고 늘어져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4·11 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적 야권연대를 이뤘다”며 “앞으로 야권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서민정치를 실현하는 통합진보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동구 박주선(무소속)

민주 경선 잠음 딛고 저력의 승리

4·11 총선에서 최대의 정치적 시련을 겪은 무소속 박주선 후보가 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들을 모두 누르고 당선됐다.



나왔다. 박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큰 현신으로 구민에게 보답하겠다”며 최대한 저자세

“3번 구속, 3번 무죄”의 인생 역경이 잘 보여주듯 이번 선거전에서도 박 당선자는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3선 고지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터진 불법 선거인단 모집과 한 관계자의 투신 사망사건으로 심하게 뒤뉘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유태명 동구청장은 물론 최측근까지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박 당선자는 또 한 번의 모험을 감행했다. 민주통합당이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하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지역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던진 이 주사위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를 유지하면서 탄탄한 조직력을 이용한 ‘사즉생’의 선거전을 폈다.

이를 반영하듯 개표 마지막까지도 2위 양형일 후보와 손에 땀을 쥐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표차는 불과 456표. 득표율 차이는 0.9%포인트에 불과했다. 박 당선자는 사실상 지난 18대 공천경쟁에서 물리쳤던 양형일 후보를 이번엔 다시 누름으로써 동구의 패권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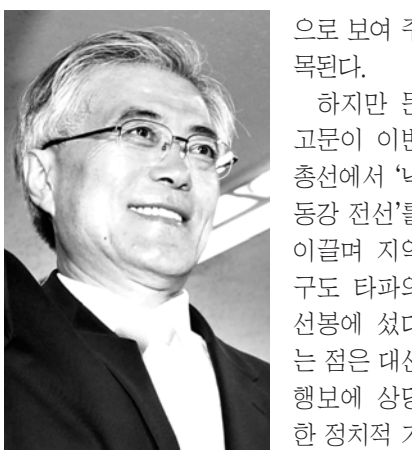
박 당선자는 “동구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며 “시련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 99%의 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산 사상 문재인(민주통합)

정권교체 기치...유력 대선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국회 진입에 성공했다.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 고문은 일단 이번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정치적 보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상에 출마한 문 후보는 12일 새벽 1시 20분 현재, 개표 결과, 55%의 지지를 얻으면서 44%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 여유있게 승리했다.

대선주자급 후보로서 상대가 27세의 정치신인이었지만 전통적인 여권의 텃밭에서 이룬 승리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승리로 그는 정세균 상임고문과 함께 야권 대선주자군 가운데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도 갖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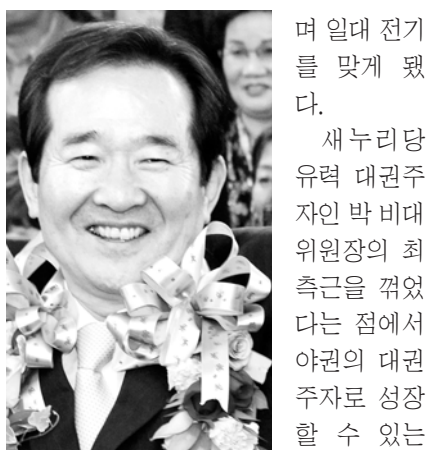
하지만 조경태(사하 을) 후보를 제외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함께 싸웠던 전제수(북·강서갑), 문성근(북·강서을), 최인호(사하 갑), 김영춘(진 갑), 김경진(진 을) 후보들이 모두 패배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일정 부분 퇴색했다는 평가다.

이는 대선 전국에서 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다소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울 종로 정세균(민주통합)

정치 1번지 ‘거물대결’서 신승



한 것이다. 그는 총선 직후 캠프 조직을 정비하는 등 대권가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역대 7차례 총선(1998년 재보선 제외)에서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정치1번지 종로’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으며 정치 역사를 새로 썼다.

정 당선자는 2009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4선을 한 지역구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을 떠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말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철저한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으로 종로 민심을 파고들었다.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측근인 홍사덕 의원이 공천되면서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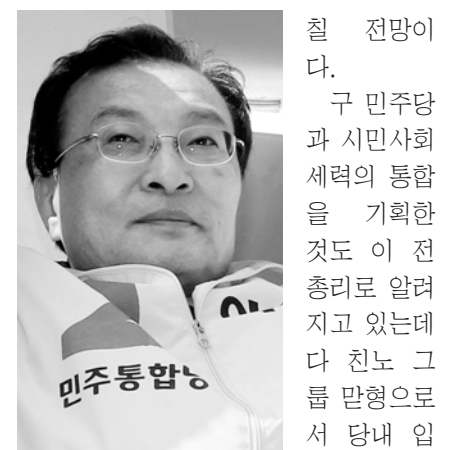
선거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전 양상을 띠었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을 연출했다.

이번 승리로 정 후보는 정치인생 16년만에 명실상부한 전국 정치인으로 발돋움하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세종시 이해찬(민주통합)

‘충청맹주’ 선진당 심대평 눌러



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박지원 의원과 친노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전 총리가 민주당 총선 패배 이후의 당내 주도권을 놓고 미묘한 경쟁을 펼치지 않느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첫 총선이 치러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가 자유선진당 심대평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12일 새벽 1시 30분 현재, 이 후보는 48.2%의 지지율을 기록, 33.7%의 지지율을 확보하는데 그친 심 후보에 여유있게 앞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 후보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세종시를 기획하고 추진한 저에게 세종시 완성의 소임까지 맡겨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9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한 세종시는 전국 관세의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의 상징인데다 전직 총리 출신이자 민주당 후보 가운데 최다선(5선) 후보와 ‘충청 맹주’인 자유선진당 당수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후보의 국회 진입으로 민주통합당 내부의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전망이다. 구 민주당과 시민사회 세력의 통합을 기획한 것도 이 전 총리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친노 그룹 말춤으로 서 당내 입자가 탄탄하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등 타지역 후보들 성적표

문병호 신계륜 박홍근 ‘웃고’ 김효석 송두영 조순용 ‘울고’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성적이 기대에 못미쳐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일보가 최근 4·11 총선 전국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된 광주·전남지역 출신 후보는 25명이었다.

이중 당선자는 문병호(민주통합당·인천 부평 갑)·박홍근(·서울 중랑 을)·신계륜(·서울 성북 을)·전해철(·경기 안산 상록 갑)·최재천(·서울 성동 갑)·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 동안 을)·정두

언(·서울 서대문 을) 후보 등 7명(28%)이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새누리당 2명 등의 순이었다.

선거구별로는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명씩이었다.

김효석·전병태·송두영·조순용 후보 등 18명은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가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이유는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들이 전체 25명 중 14명을 차

지하는데, 이들이 각 선거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패했기 때문이다.

당선자들은 각 지역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음 물론 서민과의 소통, 신뢰의 정치,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전해철 당선자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추구하고, 남북평화, 서민경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응원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당선자는 “그동안의 맑고 바른 정

치의 표본으로 인정받은 심재철식 정치를 한국 정치에 희망을 심는 복토로 점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병호 당선자는 “부평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부평미군기지 공원을 조성해줬던 부평의 파수꾼으로 돌아가겠다”며 “특권층 제일주의를 국민 제일주의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국민 프랜차이즈로 바꿔나가겠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